

해남군 “숲속에서 마음껏 뛰노세요”

흑석산자연휴양림에 숲속놀이터 조성 어린이 짚라인 등 무장에 놀이기구 갖춰



해남군은 흑석산자연휴양림에 숲속 놀이터를 조성했다. 숲속 놀이터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 어린이 뿐 아니라 비장애 어린이도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었다.

휠체어를 타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에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보행에 불편한 경사터와 계단 등을 없애 주변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가

지 완료했다.

특히 숲속 놀이터는 자연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이 위치한 흑석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목재 놀이시설과 맨발 놀이터 등을 조성, 청정한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성화된 놀이터로 조성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용 짚라인을 비롯해 마운딩트랙, 슬라이드, 목재기둥오르기, 징검목 건너기, 휴먼덕 등이 조성돼 어린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에 자리한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이다.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숲속 캠핑장,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숲속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만한 시설이 마련돼 더욱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어린이 누구나 숲속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숲속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농민회, 30년사 발간 기념 장흥농민한마당 개최

장흥농민회는 1일 장흥군실내체육관에서 장흥군농민회 30년사 발간 기념 장흥농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농민회회원과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농민한마당 행사는 장흥농민회 30년사 발간을 기념해 농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걸은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농민회는 창립 이후 30년 동안 장흥군

농민회원 및 농민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사업과 농자재 가격 인하를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축사를 통해 “장흥농민회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2023 명랑대첩축제는 진도부터 출발해요

진도군-해남군 울돌목 일원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

2023년 명랑대첩축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도군과 해남군의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관광객 여러분을 기다린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진도 승전무대에서 진도강강술래, 울돌목 국악의 향연, 남도들노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울돌목 주말장터에서는 3일간 트롯공연과 남도품바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개막행사로는 3D영상과 음향, 배우 등으로 실감나는 XR이머시브 미디어해전과 울돌목 해상에서 해전을 재현한 드론 1,000대와 불꽃쇼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일 차인 9일에는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토요일속여행, 진도씻김굿, 승전의 복놀이 퍼레이드 등 진행되며, 울돌목 바다에서는 해상 풍물벚놀이와 해군·해경 해상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한, 울돌목 상공에서는 화려한 특수비행으로 공군의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뽐내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인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로 명랑대첩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3일 차인 마지막 날에는 남도잡가, 진도다시래기, 이순신과 보성 ‘조선수군을 재건하라’, 평화의 만가행렬 등을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위한 청소년 가요제, K-POP 커버댄스, 명랑치어리딩 대전 등의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관옥선의 화려한 멀티미디어 조명쇼와 조선수군 유등 전시, 명랑대첩 스텝프렐리(굿즈 제공) 등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랑대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진도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다시 찾고 싶은 보배섬 진도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지역경제 효자노릇 ‘톡톡’

6월 유치 이후 두달간 2,400명 이용...약 4억8천만원 경제효과



강진군 마량항의 바다낚시 어선의 지난 7-8월 누적 이용객이 2,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효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은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전 6월 한 달

40명에서 유치 이후 7월 1,206명, 8월 1,27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

히 이뤄지고 있으며, 군에서 파악한 경제 유발효과만도 누적액 약 4억 8,000만원으로 마량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마량항에 있는 음식점 사장 A씨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후 수산업에서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해 식당뿐만 아니라 도시락 판매까지 더해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웃음 지었다.

또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낚시객들이 자주 방문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마량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낚시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관광버스를 통한 낚시객 인센티브 지급,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 낚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마량항이 바다낚시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바다낚시 어선 유치 추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